

참 관 기

국제양돈수의학회(I.P.V.S.)

—수의업무 세계화의 길이 보인다.—

강 영 배*

국제양돈수의학회(International Pig Veterinary Society : IPV.S) 제14차 총회 및 학술대회가 1996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이태리 중북부의 대학도시 볼로냐(Bologna, Italy)에서 개최되었다. IPV.S는 1969년에 영국의 캠브리지 (Cambridge, United Kingdom)에서 창립된 이래 1996년 현재 53개 회원국 1,700 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양돈과 수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 생산자 그리고 관련업계 인사들의 학술·기술 정보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매 2년마다 세계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다. 앞으로 2년후(1998년도)에는 IPV.S의 탄생국인 영국의 버밍햄(Birmingham, United Kingdom)에서 제15차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00년대에는 시드니 올림픽과 더불어 맞추어 호주 멜보른(Melbourne, Australia)에서 제16차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금년(1996년도) IPV.S 총회에는 우리나라에서 30개 기관/업체로부터 50여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총 27편 (구두 9편, 포스터 18편)의 학술논문들을 발표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보인다. 금년도 IPV.S 총회의 특징은 돼지의 전염성 질병중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 PRRS)"이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이태리 양돈병리축산학회 (Societa Italiana di Patologia ed Allevamento dei Suini : SIPAS) 주관으로 "돼지 적리 (Swine Dysentery)"에 관한 Satellite Symposium이 개최되었다는 점이다.

WTO 이래 어려워지고만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 분야중 그래도 비전이 보이는 양돈산업과 관련하여, IPV.S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의업무의 세계화의 길을 찾아보고자, ① 국제양돈수의학회(IPV.S)의 역사 (양돈과 수의업무 전문가의 새로운 만남의 장), ② IPV.S에의 참여(제13차 방콕대회), ③ 한국 수의사의 활약(제14차 볼로냐대회), ④ 세계화의 길(제15차 버밍햄대회, 제16차 멜보른대회), ⑤ 국내양돈의 문제와 우리가 해야 할 일(수의업무 세계화의 길을 찾아) 등의 순으로 적어보고자 한다.

① 국제양돈수의학회(I.P.V.S.)의 역사

양돈과 수의업무 전문가의 새로운 만남의 장

국제양돈수의학회 (International Pig Veterinary Society ; I.P.V.S.)는 1969년에 영국의 캠브리지 (Cambridge, United Kingdom)에서 세계각국의 양돈과 수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 생산자 그리고 관련업계 인사들의 학술·기술 정보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창립당시 약 500 여명이었던 회원수가 1996년 현재 53개 회원국 1,700 여명의

* 수의과학연구소 해외전염병과장

- 회원으로 증가된 바 있다.
- IPV.S는 매 2년마다 세계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는데 창립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개최국 및 개최지역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1969년 영국 캠브리지 (Cambridge, United Kindom)
 - 제2차 1972년 독일 하노버 (Hannover, Germany)
 - 제3차 1974년 프랑스 리옹 (Lyon, France)
 - 제4차 1976년 미국 에임스 (Ames Iowa, USA)
 - 제5차 1978년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 (Zagreb, Yugoslavia)
 - 제6차 1980년 덴마크 코펜하겐 (Copenhagen,

Denmark)

제7차 1982년 멕시코 멕시코시티 (Mexico City, Mexico)

제8차 1984년 벨지움 겐트 (Ghent, Belgium)

제9차 198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Barcelona, Spain)

제10차 1988년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 (Rio de Janeiro, Brasil)

제11차 1990년 스위스 로잔느 (Lausanne, Swizerland)

제12차 1992년 네델란드 헤이그 (The Hague, The Netherlands)

제13차 1994년 태국 방콕 (Bangkok, Thailand)

제14차 1996년 이태리 볼로냐 (Copenhagen, Denmark)

IP.V.S.의 현재의 회장단은 이태리에서 맡고 있으며, 조직위원회 위원장(회장)은 Dr Eraldo Seren, 총무 위원장은 Dr G.Pietro Sandri, 학술위원장은 Prof Pier Giorgio Monetti가 맡고 있다. 앞으로 2년후 (1998년)에는 IP.V.S.의 탄생국인 영국의 버밍햄(Birmingham)에서 제15차 총회 및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총회에서 영국으로 의장단을 넘겨준 바 있다.

② I.P.V.S.에의 참여

제13차 방콕대회

필자가 IP.V.S.에 처음으로 참여한 것은 1994년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13차 방콕대회이며, 마침 7월 1일과 2일에는 IP.V.S. 총회와 맞추어 국제수역 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 O.I.E.) 동북 아시아지역회의의 오제스키병(Aujeszky's disease; AD) 심포지움도 동일장소에서 후속으로 개최된 바 있었는데 따라서 동 IP.V.S. 총회에서 발표된 총 537편의 학술논문 중 주요 관심사는 오제스키병이었으며, 새로운 돼지의 전염병으로 인정되는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PRRS)은 그 다음이었다. 필자 등은 국내의 PRRS 연구결과 2편을 구두로 발표하였는데 아시아에서는 처

음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의 제13차 IP.V.S. 방콕대회는 아시아 지역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였으므로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가 많았으며 총 42개 회원국으로부터 1,5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O.I.E. 지역회의 대표뿐만 아니라 연구소와 대학, 양돈관련 동물약품, 사료업체 등으로부터 의외로 높은 관심과 많은 참가(45명)를 보여 양돈분야 수의업무의 세계화의 길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마침 대한수의사회장을 맡고 국회의원 이길재 회장을 비롯하여, 박용복 교수, 김우호 교수, 경북대 김봉환 교수, 전남대 박남용, 고흥범 교수, 충남대 신광순, 김철중 교수, 충북대 강신영 교수, 강원대 한정희 교수, 연암원예축산전문대 원송대 교수,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주한수 교수, 최창수 박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수의과학연구소의 강영배 (해의전염병과장), 윤용덕 (병리과장), 안수환 (병독과장), 김용주 연구사, 축산시험장의 진영화 연구관, 농림수산부의 이상진 수의사, 동물검역소의 고흥범 과장,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정기수 연구사 그리고 양돈 및 동물약품 수의업계로 부터는 동방의 이각모 사장, 원세현 수의사, 중앙케미칼 김무진 사장, 한국바이엘 유병문 이사, 예제길 박사, 정성대 수의사, 중앙케미칼 김무진 사장, 한국바이엘 유병문 이사, 예제길 박사, 정성대 수의사, 한국화이자 조영웅 상무, 대성미생물 허원 상무, 제일화학 여운돈 상무, 시바 가이기 최훈희 이사, 스미스클라인-비첨 김용팔, 김찬수 수의사, 파천연구소 윤인중 박사, 대한제당 양창근 박사, 도드람 정현규 수의사, PIC 정재영 수의사, 선진홍성준 수의사, 제일종축 한병우 수의사, 제일사료 황인수 수의사, 양지약품 김용민 수의사, 엘랑코 이주하 수의사, 사이나미드 이원형 수의사, 전남대 대학원생 남항미,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생 윤경진 등이 참석하였었다.

③ 한국 수의사의 활약

제14차 볼로냐대회

금년(1996년도) I.P.V.S. 총회에는 53개 회원국으로부터 1,7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0개 기관/업체로부터 50여명이 참여하였다. 주최국인 이태리 (206명)가 가장 많이 참석하였으며, 미국 (163명), 스페인 (105명), 프랑스 (89명), 덴마크 (82명), 영국 (74명), 벨지움 (69명), 스웨덴 (51명)의 순으로 참석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다수참가 10개국에 들게된 바 있다. 대부분의 국제적 모임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많은 수의 참가를 보여왔던 일본은 금년 I.V.P.S. 총회에는 30명 미만이 참가하므로써 상당한 대조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소속기관/업체별 참가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의과학연구소에서는 해외전염병과의 강영배 과장, 권창희 연구관, 신진호 연구사, 병리과의 황의경 연구관, 류영수, 박철휘 연구사, 바이리스크과의 박봉균 연구관, 기생충과의 강승원 연구관 등 8명이 참석하였는데 박봉균 연구관과 신진호 연구사는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박사과정에 연수중에 있어 각자의 지도교수와 함께 참석하였다. 대학으로부터는 전 서울대 교수이며 다년간 I.P.V.S.에 참석하신 바 있는 박용복 교수와 서울대 윤희정, 채찬희 교수, 경북대 김봉환 교수, 전남대 박남용, 강문일, 고흥범 교수, 충남대 신광순, 김철중, 김현수 교수, 강원대 한정희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양돈 및 동물약품, 수의업체로부터는 동방 이각모 사장, 원세현 수의사, 한국바이엘의 유병문 이사, 예재길 박사, 정성대 수의사, 한국화이자(헬스케어)의 오효성 사장, 김용팔, 이원형 수의사, 중앙케미칼의 박종영 부사장, 김기동, 최형규 수의사, 한국미생물연구소의 박정문 박사, 대성미생물의 허원 상무, 시바 가이기의 신현준 수의사, 배링거 잉겔하임의 이종현 사장, 과학축산의 양경덕 이사 미원의 김홍집 박사, 대한제당의 양창근 박사, 제일제당의 손홍인 수의사, 코리아화합의 한병우 수의사, 도드람의 정현규 수의사, 제일축축의 지용신 수의사, 동방유량의 염성욱 수의사, 삼양사의 문병현 부장, 제일사료의 신현덕, 최인규 수의사 등이 참석하였다. 한편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주한수 교수, 캐나다 가축위생연구소의 조현주 박사, 일본 동경농공대학의 대

학원생 손덕수 수의사 등도 각각 해당 외국소속의 회원으로 참석하였다.

금년도 I.P.V.S. 총회에 있어서는 특강 10편, 구두발표 248편, 포스터 발표 420편 등 도합 668편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으며, 금년에 발표된 논문의 연구동향의 특징은 돼지의 전염성 질병중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시 되고 있는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PRRS)"이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총 36편(구두발표 20편, 포스터발표 1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연구의 주요대상이었던 돼지 오제스키병에 관한 논문 32편(구두발표 14편, 포스터발표 18편)이 보고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금년도 I.P.V.S.에서 발표된 특강 (Invited Special Lectures)은 모두 10편이었으며,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1) 인간 - 동물 상관성 및 돼지의 생산성 (Human-animal relationship and productivity in pigs. P.H. Hemsworth, G.J. Coleman. Australia)
- 2) 대사와 번식간의 상관성 (Relationship between metabolism and reproduction. G.R.Foxcroft, J.R. Cosgrove, F.X. Ahernne. Canada)
- 3) 전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의 진단기법의 발전과 돼지 임상에 있어서의 활용(Advances in diagnostic and utilization of diagnostic results by swine practitioners to prevent and control infectious diseases. P.S. Paul, USA)
- 4) 돼지 도축병리와 식육위생 : 새로운 절차 (Slaughter pig pathology and meat hygiene : New procedures. P.S. Marcato. Italy)
- 5) 돼지 제놈의 작도 : 위생과 생산에의 응용(Mapping the pig genome : Applications for health and production. L.B. Schook, M.S. Rutheford, M.P. Murtaugh, G.D. Dial. USA)
- 6) 돼지 예방백신 연구에 있어서의 최근의 발전사항 (Recent development in pig vaccinology. R.J.M. Moormann, P.A. van Rijn, H.J. de Smit, G.Wensvoort, C. Terpstra. Netherlands)

- 7) 유전공학적으로 제조된 가성광견병바이러스 생독 백신 : 예방접종과 박멸사업에 대한 새로운 개념 (Genetically engineered pseudorabies virus live vaccines : Novel concepts for vaccination and eradication. T.C. Mettenleiter, Germany)
- 8) 돼지 전염병 관리를 위한 위생전략 : 유럽에서의 경험 (Health strategies to control swine infectious diseases : European experience. J.M. Westergaard)
- 9) 비 관습적 목적을 위한 비타민의 이용 (Use of vitamins for nonconventional purposes. A. Mordenti, M. Marchetti. Italy)
- 10) 양돈에 있어서의 공해방지를 위한 사양전략 (Feeding strategies for pollution control in pig production. Y. Henry, France)

우리나라는 금년도 I.P.V.S.에서 9편의 구두발표(강연 2편, 박봉균 2편, 신진호, 권창희, 조현주, 주한수, 정현규)와 18편의 포스터발표(박남용, 강영배, 신진호, 고흥범, 채찬희, 예재길, 김봉환, 한정희, 박최규, 황의경, 윤희정, 이원형, 손덕수 등), 총 27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제1발표회장인 대형강당(Europa Room)에서 발표된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PRRS)에 관한 연구 과제중, 제일 첫 과제를 필자가 발표하는 영광을 얻은 바 있으며, 두번째 과제를 박봉균 연구관(미국 미네소타대), 다섯번째 과제를 신진호 연구사(미국 미네소타대), 여섯번째 과제를 조현주 박사(캐나다)가 발표하여 총 8개 과제중 4개 과제를 한국인이 발표하였으며 특히 좌장으로는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의 주한수 교수가 맡아 진행하여 금년도 I.P.V.S. 총회에 있어서 한국의 붐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한 바 있다.<사 진참조>

한편 7월 8일에는 이태리 양돈병리축산학회 (Societa Italiana di Patologia ed Allevamento dei Suini ; S. I.P.A.S) 주관으로 "돼지적리(Swine Dysentery)"에 관한 Satellite Symposium이 개최되었는데 적리에 관한 75년(1921~1996)의 역사와 *S.hydysenteriae*에 관한 25년 (1971~1996)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이 심포지움에서의 주제발표는 스웨덴 농업과학 대학교 수의과대학 (Faculty of Veterinary Medicine,

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s) Claes Fellstrom 교수의 "돼지적리 : 병인체론 및 기병론"(Swine Dysentery : Aetiology and Pathogenesis),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임상수의학과(Department of Clinical Veterinary Medicine, University of Cambridge) T.J.L. Alexander 교수의 "돼지적리 : 임상적 관점과 진단론"(Swine Dysentery : Clinical Aspects and Diagnosis), 그리고 영국 글라스고대학교 수의대학 (University of Glasgow Veterinary School) D.J. Taylor 교수의 "돼지적리의 치료와 관리"(The Treatment and Control of Swine Dysentery) 등이 있었으며, 많은 전문가들의 질의 응답과 토의가 있었다.

7월 9일 저녁에는 옛 성내에 마련된 정통 이태리식 만찬과 불꽃놀이까지 곁들인 대규모 송별연회 (Farewell Party)가 있었으며, 10일에는 총회 (Assembly), 11일의 수학여행 (Technical visits)을 끝으로 1998년 영국 버밍햄 대회에서 다시 만날 기회를 약속하며 마지막을 장식한 바 있다.

④ 세계화의 길

제15차 버밍햄대회, 제16차 멜보른대회

앞으로 2년후 (1998년도)에는 I.P.V.S.의 탄생국인 영국의 버밍햄 (Birmingham, United Kingdom)에서 제15차 총회 및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제16차 총회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시기를 맞추어 호주 의 멜보른 (Melbourne, Australia)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결정되어 있다.

지난 6월 프랑스 파리 (Paris, France)에서 개최된 국제수역사무국 (O.I.E.) 국제위원회 총회에서 논의된 정보를 참고해보면 돼지콜레라 (Classical swine fever ; CSF)가 독일, 이태리 등 EU 회원국은 물론 러시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아직까지도 크게 문제시 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따라서 I.P.V.S. 제15차 총회 (버밍햄대회)에서는 돼지콜레라에 대한 집중적인 학술포럼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리의 돈육 수출시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본은 향후 돼지콜레라 비발생국(예방접종 비실시)으로

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금년 (1996) 4월부터 강화된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을 착수하였음을 발표한 바 있다. 만일, 일본이 예방접종 비실시 돼지콜레라 비발생국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실시 돼지콜레라 발생국가인 우리나라의 돈육수출 시장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그 대책은?

IP.V.S.는 매 2년마다 개최되며, 총회에서 향후 4년 후의 개최국가와 도시를 결정하는데 금년의 제14차 볼로냐 대회에서는 제16차 총회(2000)의 개최국가와 개최를 결정한 바 있다. 제16차 총회의 개최를 희망한 곳은 알제틴의 브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 Argentina), 호주의 멜보른(Melbourne, Australia), 멕시코의 칸구(Cancu, Mexico)이었는데 격렬한 유치활동 후에 총회에서 표결결과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개최되는 호주의 멜보른이 결정된 바 있다. 한편 IP.V.S. 제17차 (2002) 총회와 관련하여 뜻있는 국내의 몇몇 인사들로부터 2002년 월드컵(World Cup 2002)이 개최되는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대두된 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국내의 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수집 조율하고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한 후에 의견이 결정되면 제15차 버밍햄대회에서의 공식제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바램으로는 버밍햄대회에 우리나라 양돈수의업계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실 것을 기대해 보는 것이 우리나라 수의업무의 세계화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는 길일 것으로 사료된다.

⑤ 국내 양돈의 문제와 우리가 해야 할 일

수의분야 세계화의 길을 찾자

UR/GATT 협정이후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따라 어려워지고만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 분야중 그래도 비전이 보이는 양돈산업과 관련하여, 국내 양돈수의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IP.V.S.를 통하여 우

리나라 수의업무의 세계화의 길을 찾는 일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과제라 생각된다. 최근에 발표된 농림수산부 집계 "96 농업 총조사" 데이터를 참고로 해보면 우리나라 양돈 농가수는 1980년도의 692천호를 기준으로, 303천호(1985), 161천호(1985), 98천호(1995)로 급격히 감소해 온 반면, 돼지 사육두수는 1980년도의 40,130천두를 기준으로 51,081천두(1985), 74,463천두(1985), 90,029천두(1995)로 급격히 증가해 왔다. 따라서 양돈농가 호당 돼지 사육두수는 1980년도의 58두를 기준으로 169두(1985), 463두(1990), 919두(1995)로 대폭 증가하여 매 5년 간격으로 각각 3배, 8배, 16배의 증가폭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양돈의 형태가 소규모 부업형으로부터 대규모 전업형태로 발전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양돈의 형태가 소규모 부업형으로부터 대규모 전업형태로 발전되어 왔음에 비추어 우리나라 양돈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세계화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세계화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누구도 쉽게 답변을 내릴 수는 없으며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양돈수의분야의 세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위생적 측면에서 ; ① 돼지콜레라, 설사, 기생충, 호흡기 질병 등 풍토병의 근절, ② 해외 악성전염병 잠입방지로 국내 양돈산업 보호, ③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안전성 확보(HACCP 관련)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사양적 측면에서 ; ① 돼지 종축의 국내개발 및 한국형 종돈생산, ② 양돈사료의 국산화(국내산 사료자원의 개발과 생산), ③ 양돈의 성령화/기계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① 환경친화 양돈단지의 조성 과 육성, ② 돈육의 고급화, 소비촉진 및 유통구조의 전면개선 그리고 ③ 생돈 및 돈육의 수출작목화를 조속히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세계화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양돈수의학회(IP.V.S.) 제13차 방콕대회 및 제14차 볼로냐대회, 제15차 버밍햄대회와 관련, 협의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수의과학연구소 해외전염병과(전화 0343-67-1855 또는 FAX 0343-49-588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